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수상자 듀오 리사이틀

첼리스트 최하영, 이바이 첸 ACC 재단, 18일 예술극장2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는 차이코프스키, 쇼팽 콩쿠르와 함께 세계 3대 음악 콩쿠르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매년 5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4년을 주기로 바이올린, 피아노, 첼로, 성악의 부문에 대해 번갈아가며 개최한다. 올해는 첼로 부문 경연이 이뤄졌는데 152명 지원자 중 최종 결선에 12명이 진출해 한국인 최하영이 1위를 차지해 화제가 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은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수상자 듀오 리사이틀'을 오는 18일(오후 5시) ACC 예술극장 극장2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클래식 음악 분야 유명 아티스트를 초청하는 고품격 공연인 ACC 슈퍼클래식 두 번째 공연으로 기획됐다.

한국인으로는 6년 만에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을 거머쥔 최하영과 2위를 차지한 이바이 첸은 이번 한국 투어가 처음이다. 공연 반주자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역대 수상자이자 협력 피아니스트인 리브레르트 반베케부르트가 참여한다.



첼리스트 최하영

최하영은 콩쿠르 경연 당시 대회 고정 레퍼토리를 벗어나 루토스와프스키 협주곡을 연주하며 자신만의 실력을 인정받았다. 이번 무대에서 젊은 첼리스트의 새로운 해석으로 쇼스타코비치, 브리튼, 멘델스존의 첼로 소나타를 선보일 예정이다. 최하영은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기간 다른 파이널리스트들과의 경쟁보다는 서로 협력하고 의지하는 분위기가 덕분에 도움이



첼리스트 이바이 첸

이 많이 되었고 큰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다"며 "한국 투어는 이번이 처음이고 다양한 우리 관객들을 뵈 생각에 정말 기쁘다"고 밝혔다. 이번 ACC슈퍼클래식 관람료는 R석 4만원, S석 3만원이며 예매는 ACC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문의 062-601-4682.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지역축제, 이대로 좋은가'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창' 가을호 발간

지역에서는 매년 많은 축제들이 개최되고 있다. 물론 지난 2년간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축제가 온라인으로 개최되거나 취소된 경우가 많았다. 지역에서 개최되는 많은 축제 가운데 얼마나 많은 축제가 시민들과 외국인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을까.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하 재단)이 발행하는 문화답론티지 '창' 가을호(통권58호)가 특집기획으로 '지역축제, 이대로 좋은가'를 다뤘다. 다양한 시각으로 다른 기획 글들이 눈길을 끈다.

구체적으로 '광주 축제의 진단과 전망'(박종찬 광주대학교 교수), '광주다운 축제로서 5·18 전야제의 가능성'(고선주 광남일보 문화부장),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의 명과 암'(김옥열 다큐디자인 대표), '칠석 고싸움놀이에서 발견한 지속가능한 마을축제'(임승호 남구주민회의 운영위원장), '외부의 시각으로 바라본 광주 축제'(신경구 광주국제교류센터 소장)의 제언이 담겨 있다. 또한 '핫피플 인터뷰'에서는 인문연구원 동고송에서 인문학 전파에 힘쓰고 있는 철학자 황광우 작가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이어 '문화공간 리뷰'에서는 지난 6월 재단이 개최한 인문예술융합축제 '2022 세계 지성이 광주를 말한다'의 현장 사진과 참여 예술가 및 시민들의 후기를 담았다. 아울러 '문화공간 문화록'에서는 시민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김혜라 재단 간사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한편 '창'은 공공기관 및 문화유관기관에 배포되며 재단 후원 회원이 되면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재단 누리집을 통해서도 열람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아시아박물관 산책1' 문화강좌... 14일~12월 21일

부산대 조흥국 명예교수 첫 강연

동남아시아 박물관에는 어떤 유물들이 전시돼 있을까. 우리나라와 동남아의 교류사를 박물관 전시물을 통해 알아보는 이색적인 자리가 마련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박물관 산책1'(동남아시아) 문화강좌를 연다. 오는 14일부터 12월 21일(격주 수요일 오후 6시30분)까지 호남문화재단연구원과 아시아인문재단이 공동 기획했다.

이번 강좌는 한마디로 유물과 전시물로 살펴보는 동남아 역사와 문화 지식 여행이다. 첫 강좌는 14일 부산대 조흥국 명예

교수가 '동남아시아 약사와 태극'을 주제로 문을 연다. 28일엔 서강대 하정민 전임연구원이 '미얀마'를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간다. 오늘의 미얀마의 사태를 비롯해 역사적 배경 등을 다채롭게 풀어낼 예정이다.

이어 '필리핀'(엄은희 ACC 방문학자), '인도네시아-부르나이'(서강대 강희정 동아연구소장), '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아시아인문재단 김성범 연구원), '말레이시아-싱가포르'(서강대 동아연구소 김종호 교수), '타이베이-오키나와'(호남문화재단연구원 이시정)를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12월 21일 양방향 전 말레이시아 대사가 '동남아시아와 한국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운 시작' 30일까지 화순 갤러리 아트14... 김명석 등 10명 작가 14점 전시

갤러리 아트14(관장 박은지·화순군 능주면 죽수길 82) 소장품전이 오는 30일까지 열린다. <사진>

'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박 관장이 지역에서 큐레이터로 활동한 2016년부터 틈틈이 수집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대부분은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젊은 작가들의 작품이다.

전시작가는 김명석·박진아·오경수·이선화·이인성·이인호·이태희·장미란·전동민(호준)·채지윤 등 10명으로 모두 14점을 감상할 수 있다. 전시작은 한국화, 서양화, 공예, 사진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른다.

박 관장은 전시작들에게 대해 "작가들마다 표현 형식은 다르지만, 현실의 벽을 인지하고 그것을 극복해나가는 희망을 내재하고 있는 작품들"이라고 말한다.

한편 갤러리 14는 제2회 청년작가공모전을 통해 선정한 작가



4명의 개인전을 11월부터 잇따라 열 계획이다. 최홍원 작가가 11월4일부터 18일까지 전시회를 열며 서린, 김현지, 윤산 작가가 내년 초까지 전시를 이어간다. 문의 010-5625-0645.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박성모 소명출판 대표 '화봉학술문화상' 수상



화봉문고(회장 여승구)는 '제7회 화봉학술문화상' 수상자로 박성모(사진) 소명출판 대표를 선정하고 6일 시상식을 개최했다.

1963년 서울 종로에서 시작한 화봉문고는 광주 출신 여승구 회장이 운영하고 있으며 고서적 경매 등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또 화봉

갤러리와 화봉책박물관도 운영중이다. 화봉학술문화상은 여승구 회장이 2010년부터 평생 고서 수집과 관련된 분야에서 뚜렷한 자취를 남긴 이를 선정, 시상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김영복 케이옥션 고문 등이 수상했다.

올해 수상자인 박성모 대표는 1980년부터 서적을 수집하기 시작해 1998년 소명출판을 설립했다. 그는 국문학을 중심으로 한 인문학 학술 도서를 발간해왔고, 2009년 근대서지학회 창립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근대서지 연구의 지평을 여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화봉학술문화상 선정위원회 측은 박 대표에 대해 "40여 년간 희귀자료를 수집하고 근대서지학 정립을 위해 노력했으며 인문학 및 학술 도서 출판을 대표한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수상을 기념하는 '임화에서 임화로' 전시는 30일까지 화봉갤러리에서 열린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전병원 양복명장 초청 강연

광주학콜로키움, 7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광주 총장로 남성패션의 역사를 조명하는 콜로키움이 열린다. 광주문화재단은 광주학콜로키움 기획 일환으로 호남 최초 양복 명장 전병원씨를 초청해 남성 양복에 대한 모든 것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7일 오후 4시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



이날 콜로키움에서는 전병원(사진) 명장이 양복업계로 입문하게 된 계기를 비롯해 총장로 양복의 계보, 우리나라 패션트렌드 등 광주 총장로 남성 패션 변천사 등을 전할 예정이다.

전 명장은 1970년대 양복점 심부름꾼으로 시작해 2014년 대한민국명장 586호로 선정되는 등 양복 디자이너 외길을 걸어왔다.

한편 광주학콜로키움은 광주학의 토대를 꾸준히 다져온 작업으로 2015년부터 30여 차례 진행됐다. 오는 21일에는 '광주문화와 함께하는 저항패션(간문자 교수)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